MONTHLY REPORT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2.1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Korea Eximbank
WE FINANCE GLOBAL KOREA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코로나 19 변종 확산 등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, 물가 상승폭 확대

- **(미국) 산업생산,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감소했으나 및 고용시장 개선세는 지속**

  - 12월 산업생산 (전월 대비 △ 0.1%) 및 소매판매액(전월 대비 △ 1.9%) 감소세, 12월 실업률은 6개월 연속 하락해 3.9% 기록

  - 12월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, 식품, 자동차 가격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7.0% 상승, 39년래 최고치 기록

- **(중국) 코로나19 재확산, 부동산 위축 등으로 경기 위축, 기준금리**(대출우대금리, LPR) **0.1%p 인하**(1월 20일)

  - 12월 산업생산 증가율(전년동월 대비 +4.3%)은 소폭 상승했으나, 소매판매 증가율(전년동월 대비 +1.7%)은 1% 대로 급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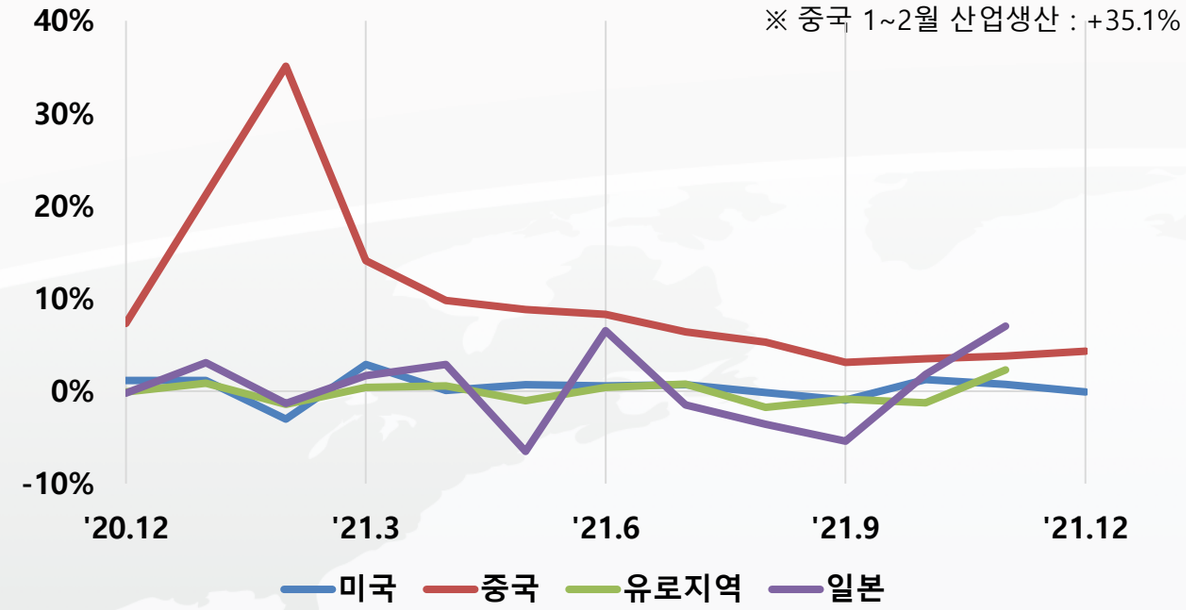
- **(유로존)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,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 19 확산 및 인플레 등으로 경제심리 악화**

  - 11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2.3%) 및 소매 판매(전월 대비 +1.0%) 는 성장세 유지,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.0%로 사상 최고치 경신

- **(일본) 반도체 수급차질 완화, '21년 11월중 코로나 19 진정 등으로 회복, 최근 코로나 19 급증으로 불확실성 증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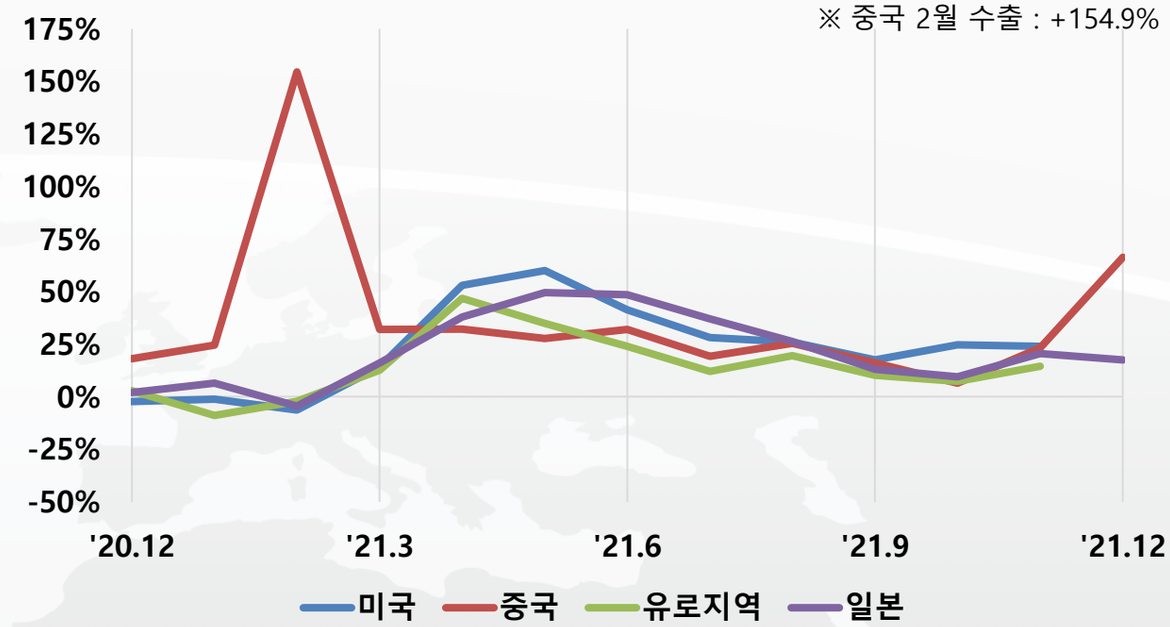
  - 11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7.2%)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회복, 소매판매(전월 대비 +1.2%)도 3개월 연속 증가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동향

■ 산업 활동 : 글로벌 공급망 수급 완화로 생산 증가, 수입물가 상승 영향으로 경기는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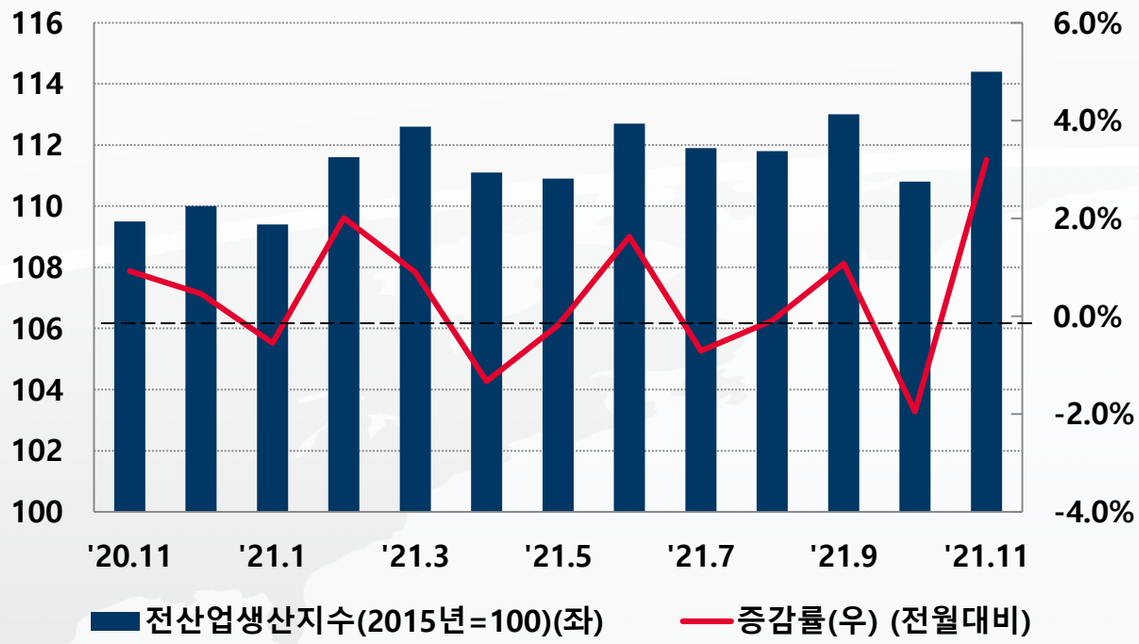
- **(생산) 1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, 서비스업 등에서 모두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3.2% 증가**
  - (광공업 : +5.1%) : 자동차(+11.3%), 반도체(+4.5%) 등은 증가, 의복 및 모피(△ 1.9%), 석유정제(△ 0.5%) 등에서 감소
  - (서비스업 : +2.0%) : 숙박음식점(+5.6%), 금융·보험(+3.0%) 등은 증가, 부동산(△ 0.1%) 등에서 감소

- **(경기) 1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**(101.3p)**는 수입물가 상승 영향으로 5개월 연속 하락**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2개월 연속 월 600억 달러 돌파, '21년 연간 6,44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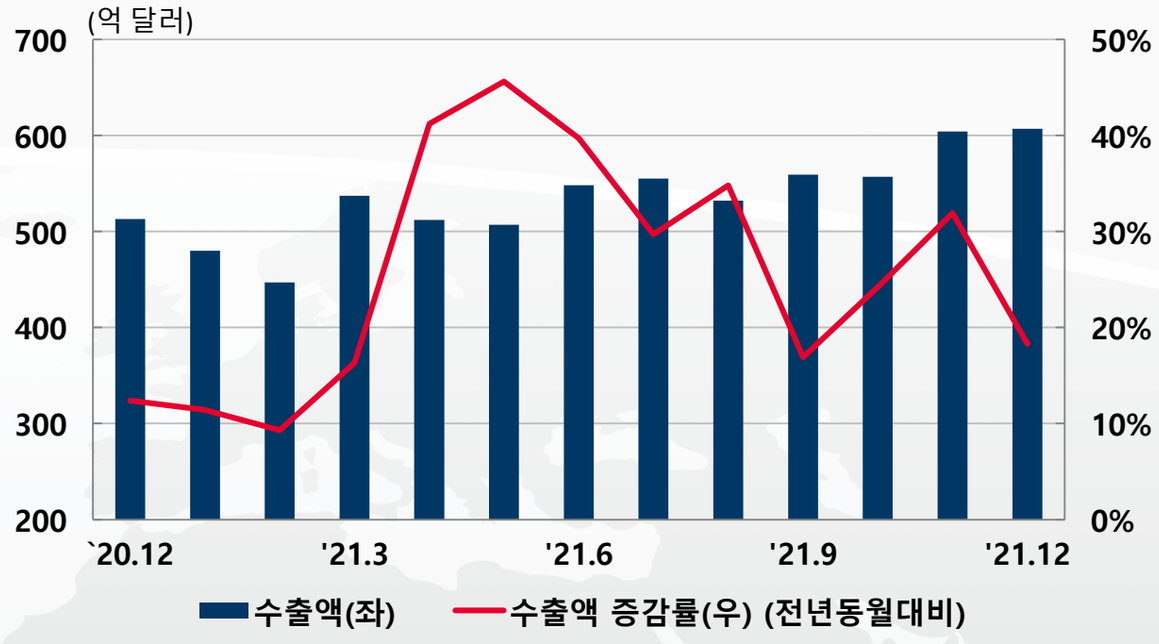
- **12월 총수출은 607.3억 달러**(전년동월 대비 +18.3%)**, 13개월 연속 증가 및 월간 최대치 경신**
  - 中(+20.8%) , 美(+22.9%), EU(+17.1%), 아세안(+23.2%) 등 주요 4대 시장 외 일본(+27.1%), 중동(+42.4%), CIS(+35.9%) 등도 선전
  - 반도체(+35.1%), 석유제품(+79.2%), 철강(+49.0%) 등 8개 품목은 두 자릿수대 증가, 선박(△49.0 %), 차부품 (△1.0 %) 등은 감소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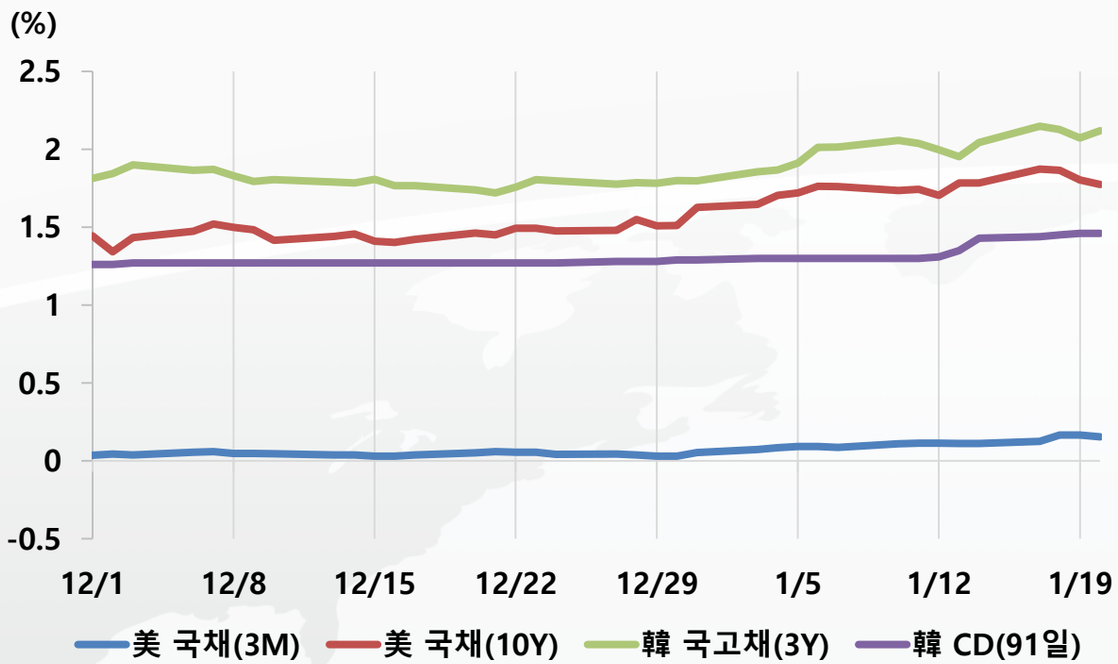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: 인플레이션율 급등에 따른 미연준의 금리인상폭 확대 가능성 등으로 미국채 수익률 상승

- **(미국) 미국채 금리**(10년물)**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미연준의 금리인상, 양적긴축 등의 논의 확산으로 1.8%대로 급등**
- **(한국) 국고채 금리**(3년물)**는 12월 중반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, 이후 미국채 금리 상승,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** (1.00% → 1.25%, 1월 14일) **및 추가 인상 가능성 등으로 2%를 돌파**

■ 환율 : 미달러화 가치 급등 후 다소 안정화, 원/달러 환율은 1,200원/달러 돌파 후 소폭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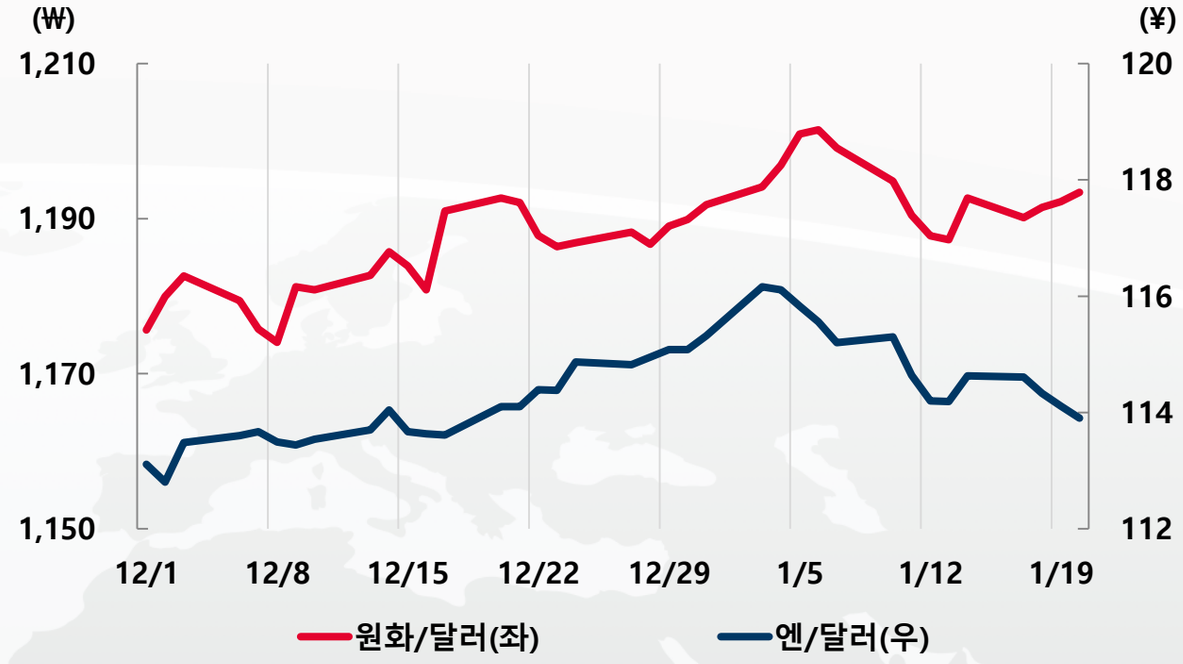
- **(원/달러 환율) 1월 초 미달러화 강세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1,200원/달러 수준을 돌파한 이후 정부의 급등에 대한 우려 표현과 수출업체의 미달러화 매도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1,190원/달러 수준에서 등락**
- **(엔/달러 환율) 1월 중 글로벌 미달러화 강세로 116.2엔/달러로 상승한 이후 114엔/달러 대로 소폭 하락**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자료 : 한국은행

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■ 원유 가격은 12월 말 이후 급등, 천연가스 가격은 1월 들어 급등했으나 하락세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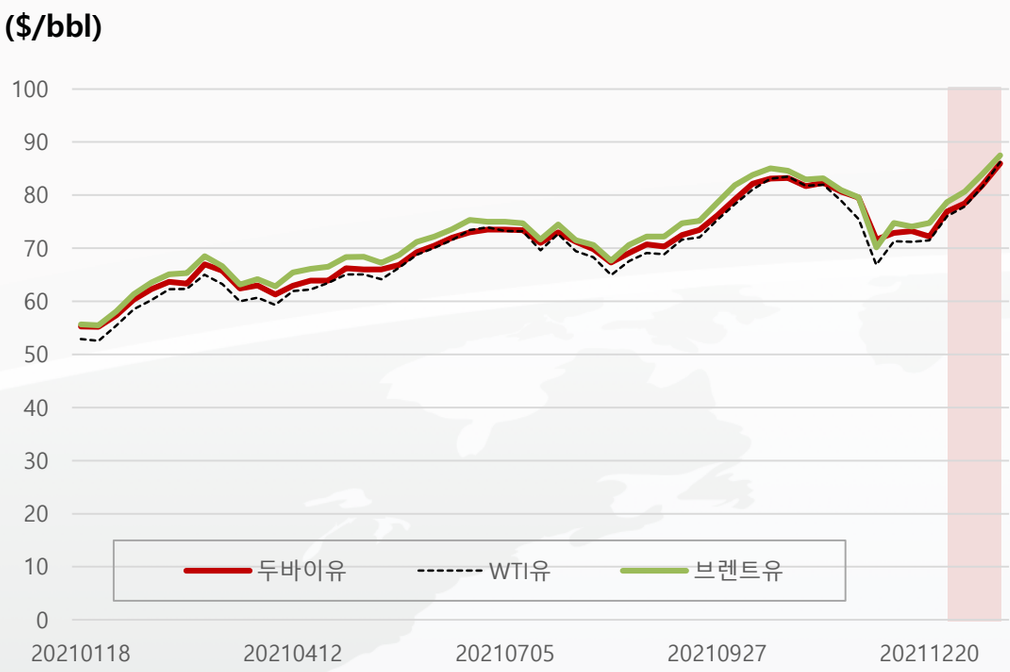
- **(원유)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산유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유가가 12월말 이후 급등하여 1월중순 배럴당 80달러 중반대 기록**

  - 1월 들어 카자흐스탄 소요, 리비아 정치상황 악화 등 공급 차질 우려 확대, 1월 중순 미국 원유재고의 8주 연속 감소 전망 등으로 유가 상승, 1월 중순 예멘 후티 반군의 UAE 공격, 러시아-우크라이나간 긴장 고조도 유가 상승 지지(1.20일, 두바이유 86.37$/bb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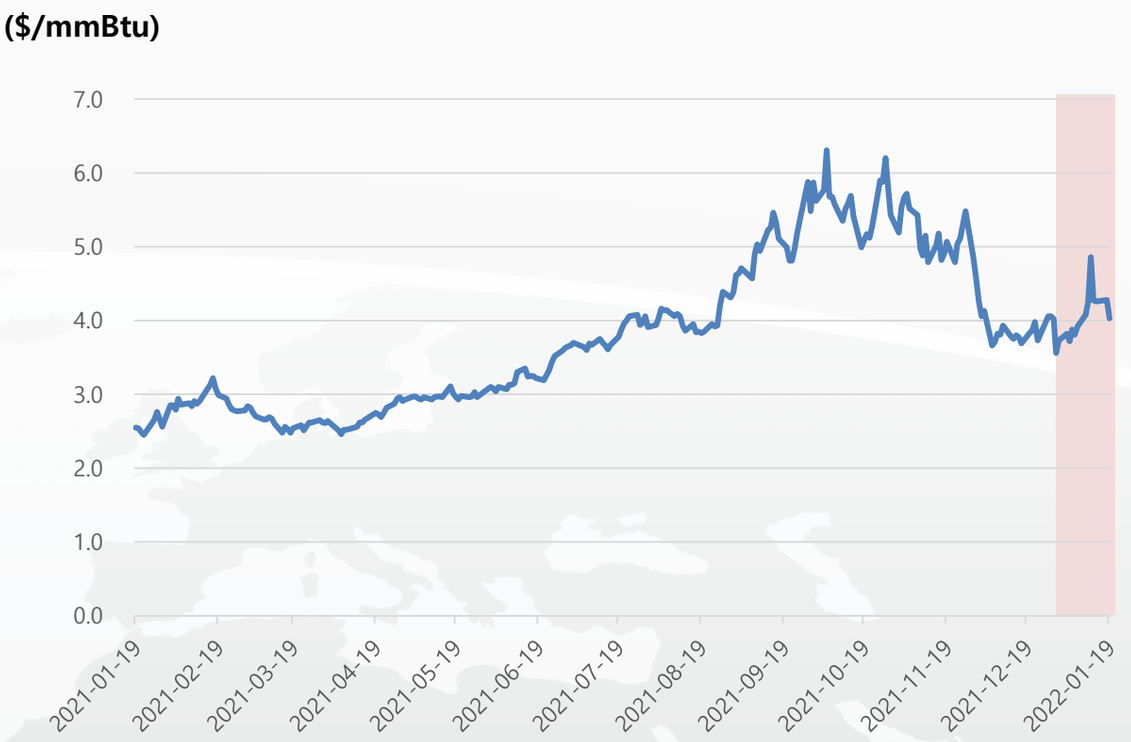
- **(천연가스) 1월 중순 한파 발생에 따른 난방용 수요 증가 기대감, 미국 가스 재고 감소 등으로 가스가격이 급등하여 mmBtu당 4달러 후반대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1월말 4달러선 기록**

  - 미국 헨리허브 가스가격은 1월 중순 4달러 후반대를 기록한 이후 평년대비 온화한 날씨 예보로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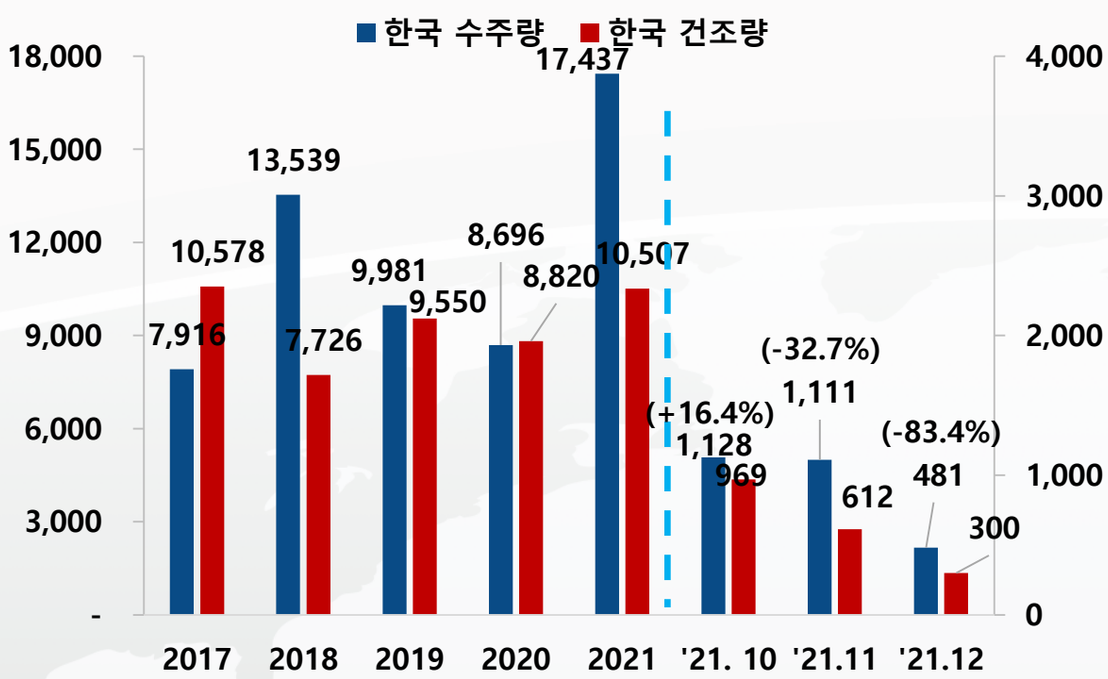
■ 12월 수주는 글로벌 발주 부진의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확대

- **12월 세계 발주량 및 한국 수주량은 상반기중 대량 발주에 따른 선주들의 관망세 등으로 모두 부진**
  - 12월 세계발주량은 156만CGT(전년동월 대비 △67.2%), 12월 누적치는 4,664만CGT(전년동기 대비 +95.2%)
  - 12월 한국 수주량은 48만CGT(전년동월 대비 △83.4%), 누적치는 1,744만CGT(전년동기 대비 +100.5%)
  - 12월 한국 수주액은 11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△81.3), 누적 수주액은 439.1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+125.7%)
  - 12월 한국 수주는 대형 LNG선 5척, 중형 탱커 2척 등 총 7척 수주에 그침

- **12월 선박 수출도 2년전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악화**
  - 12월 수출액은 14.2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△49.0%), 누적 수출액은 230.0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+16.4%)
  - 2019년~2020년 수주 부진으로 인한 일감부족이 현실화되며 수출부진 발생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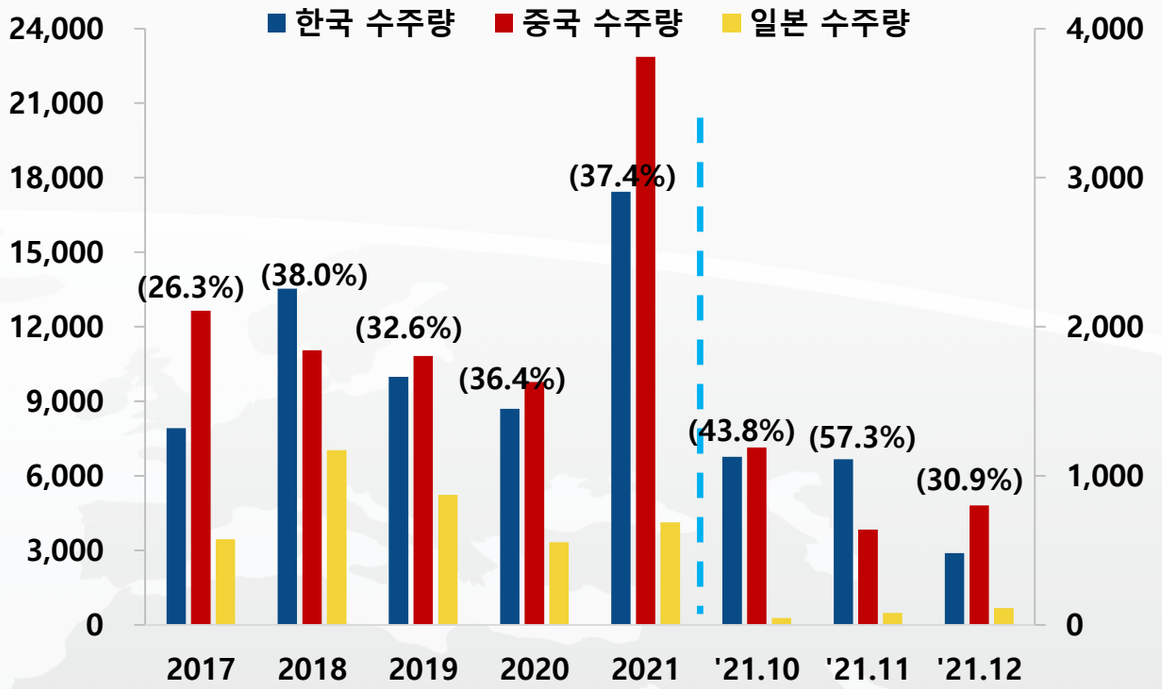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자료 : Clarkson

한 · 중 · 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자료 : Clarks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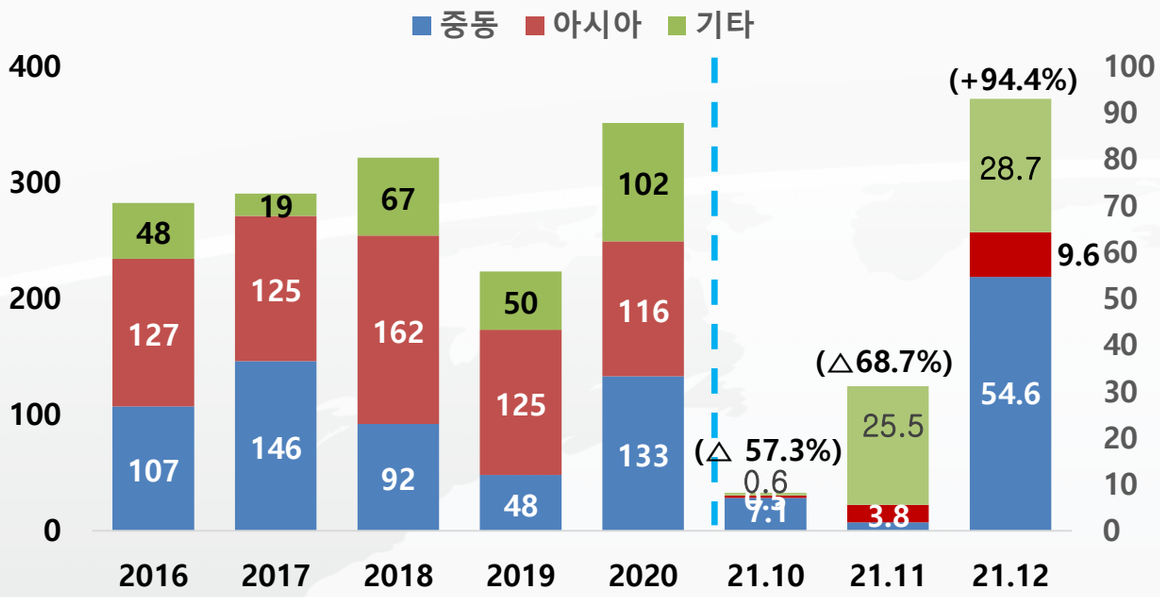
해외건설

■ 12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94.4% 증가한 92.9억 달러

- **(지역별) 12월 중동 수주액은 54.6억 달러, 아시아는 9.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88.3%, 31.5% 증가, 유럽 수주액은 러시아 발틱 케미컬 콤플렉스**(13.2억 달러) **및 헝가리 SK 배터리 공장**(6.6억 달러) **수주로 전년동월 대비 305% 증가한 22.3억 달러를 기록**
  - 12월까지 지역별 누적 수주액 : 중동(112.2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△15.8%), 아시아(92.6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△20.2%), 북미(39.3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+614%), 유럽(46.0억달러, 전년동기 대비 +188%)
- **(공종별) 플랜트 59.6억 달러**(전년동월 대비 +314%), **토목 0.9억 달러**(△96.9%)**, 건축 5.3억 달러**(+76.7%) **기록**
- **2021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12월 중동 플랜트 및 유럽 수주 호조로 306억 달러 기록, 2022년 수주액은 전년 대비 4.6% 증가한 320억 달러 전망**
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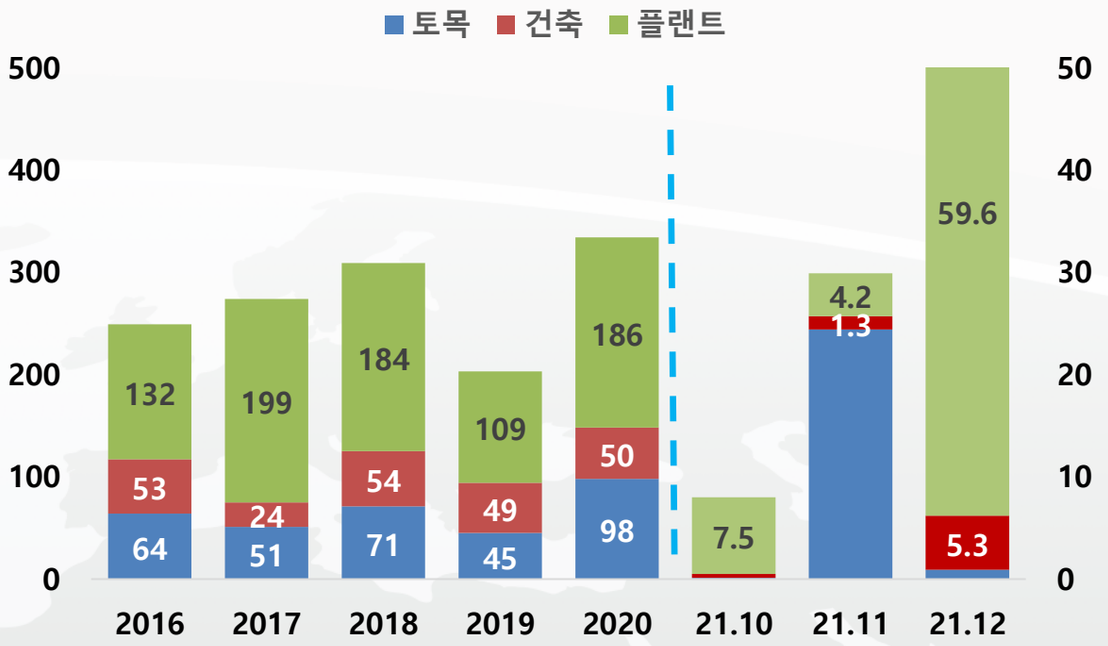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자동차

12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42.3억 달러, 21.2억 달러 기록

- **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7.3% 증가했으며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121.2% 증가**
  - 친환경차 수출확대 및 아프리카·중동 등 신흥시장 수요증가로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 대비 9.8%, 수출액은 17.3% 증가
  - 친환경 수출액은 13.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자동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

    * 친환경 자동차 수출액 비중 : ('20년 12월) 16.4% → ('21년 10월) 29.7% → ('21년 11월) 29.9% → ('21년 12월) 31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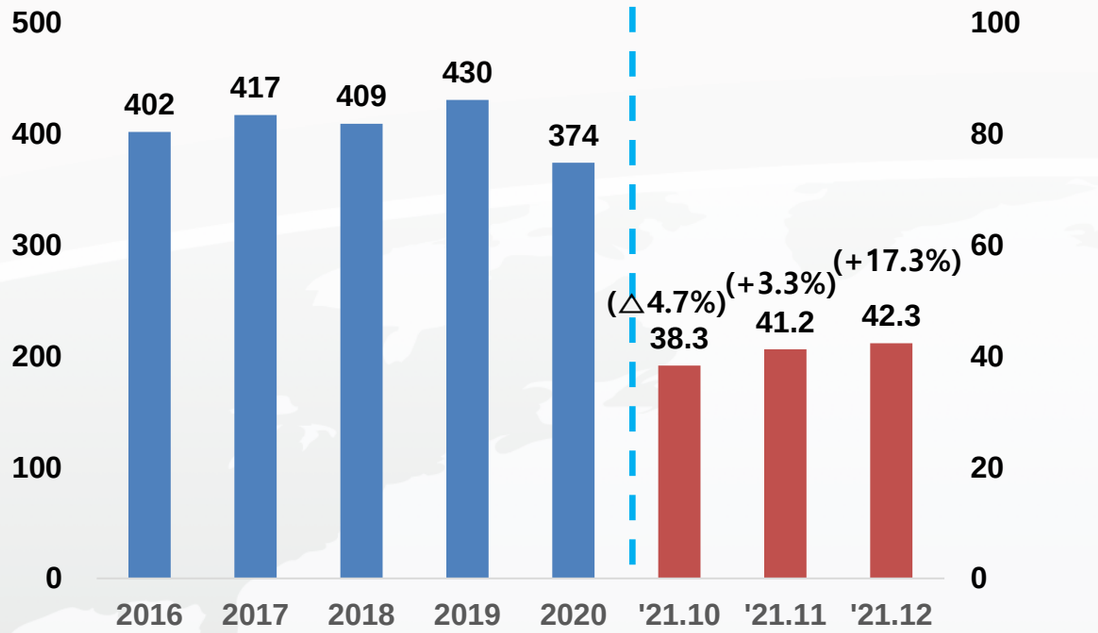
    * 친환경 자동차별 수출 비중(대수 기준) : 전기차(43.4%), 하이브리드(46.4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10.0%), 수소차(0.2%)

- **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.0% 감소한 21.2억 달러 기록**
  -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해외 완성차 공장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부품 수출액 감소

    * 자동차 부품 대륙별 수출 비중 : 북미(30.8%), 유럽(27.4%), 아시아(26.1%), 중남미(11.5%), 중동(3.4%)

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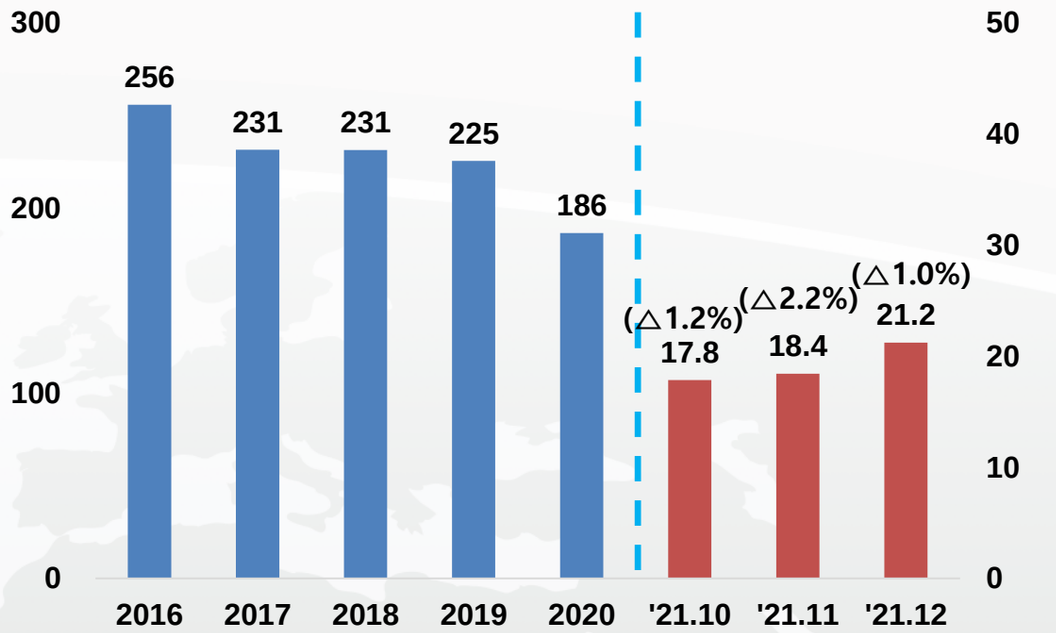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자동차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반도체·디스플레이

■ 12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34.5%, 3.1% 증가

- **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4.5% 증가한 128.5억 달러로 18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**

  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수요(서버・모바일)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0.3% 증가한 84.1억 달러 기록

    * D램 고정거래가격(달러) : ('20.10~12)2.85 → ('21.1~2)3.0 → (4~6)3.8 → (7~9)4.1 → (10~12)3.7 (D램익스체인지)

  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수요 증가*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0.2% 증가한 38.9억 달러 기록

    * 국내 파운드리는 퀄컴의 AP(Application Processor), 엔비디아의 GPU(Graphic Processing Unit) 등을 수주

    * 시스템반도체 수출가격지수(2015=100) : ('21.1)76.1 → (3)78.1→ (5)83.6 → (7)84.0 → (9)87.0 → (10~11)87.9 → (12)89.7 (한국은행)

- **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.1% 증가한 24.7억 달러로 1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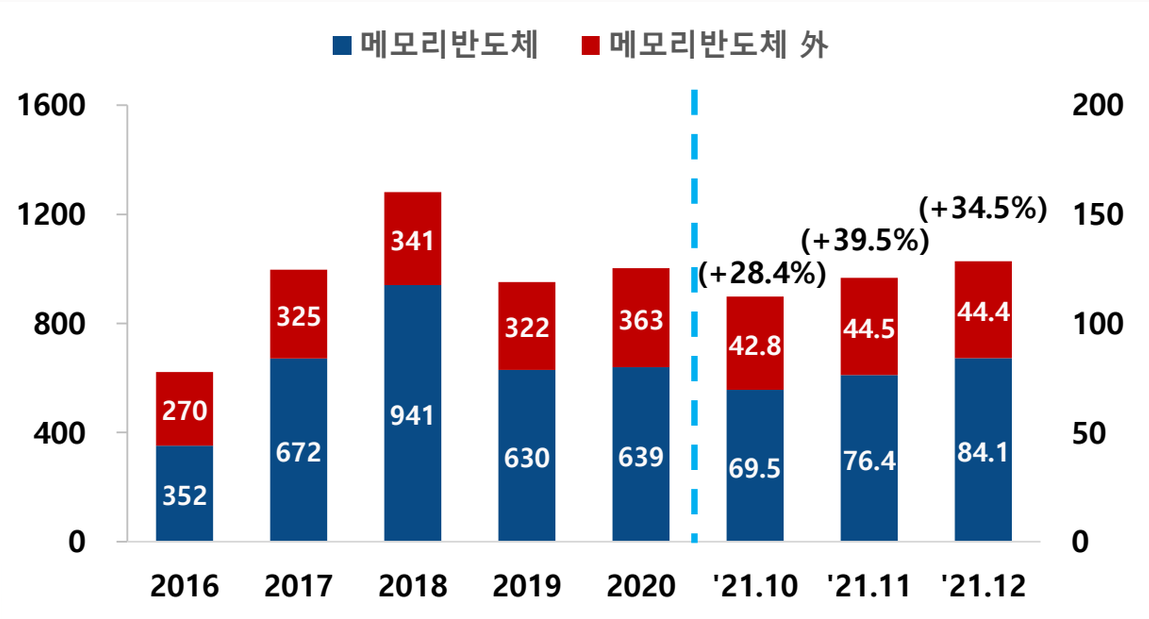
  - OLED 수출은 모바일・TV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.2% 증가한 15.3억 달러 기록

    * OLED 수출가격지수(2017.12=100) : ('21.1)61.7 → (3)54.6 → (5)51.2 → (7)52.2 → (9)50.2 → (10)50.8 → (11~12)50.2 (한국은행)

  - LCD 수출은 LCD 패널 가격 하락, LCD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8.3% 감소한 5.6억 달러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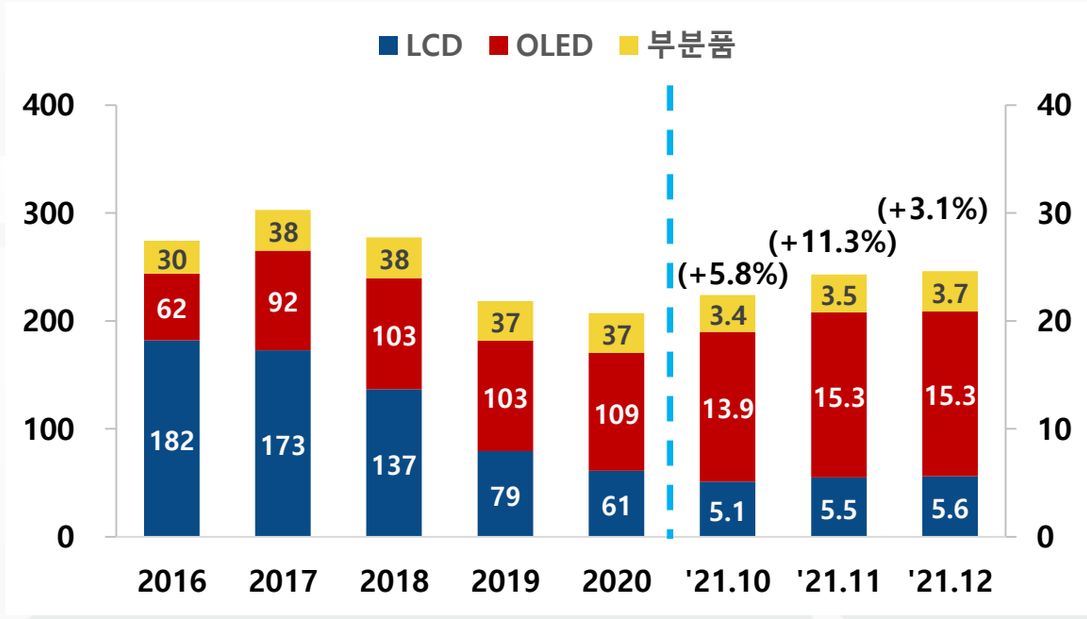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휴대폰·통신장비

■ 12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5.2% 증가, 통신장비는 2.3% 감소

- **휴대폰 수출액은 완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**(+18.4%)**하여 전년동월 대비 5.2% 증가한 13.5억 달러 기록**

  - (종합)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연간 수출액 140억 달러 달성, 12월 수출은 유럽 수출량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증가(130.9%)*

    *12월 기준 중국의 수출량 비중이 가장 높으며(50.7%), 베트남(18.7%), 미국(11.2%), 유럽(9.0%) 순,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이 수출 증가를 견인

  - (완제품) 12월 휴대폰 완제품 수출은 3.7억 달러(+18.4%)로 크게 증가, 유럽(수출비중: 42.5%)을 중심으로 증가 중*

    *완제품 수출비중은 유럽(42.5%), 북미(29.0%), 아시아(25.0%) 순이며 국가별로는 미국(27.4%)이 높은 비중이나 점차 유럽 및 아시아 수출량이 증가 중

  - (부분품)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증가 및 카메라 모듈 등 기술 경쟁력 확보로 연간 수출량이 전년대비 큰 폭(27.3%)으로 증가

- **통신장비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소폭 감소**(△2.3%) **하였으나 수출액 1억 달러는 유지**

  - (종합) `21년 연간 수출량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가며 전년대비 9.6% 증가한 10.7억 달러 달성

    *지역별 수출비중은 아시아(46.0%), 북미(22.9%), 유럽(14.6%) 순이며, 북미 · 유럽 · 아세안 지역의 5G 투자 활성화로 지속적인 통신장비 수요 발생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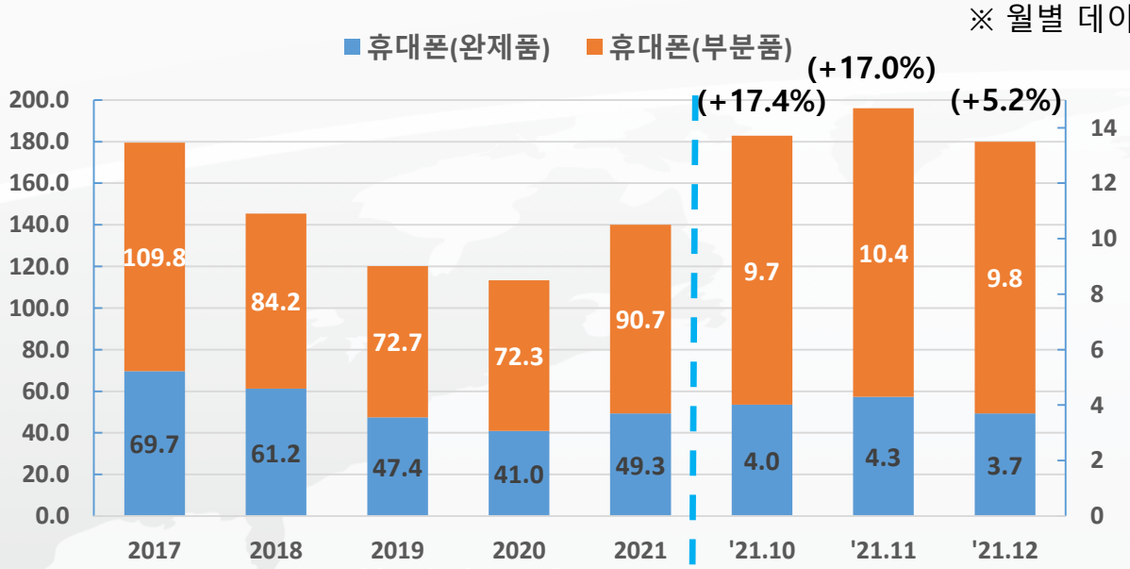
  - (전망) 삼성이 수주한 5G 통신장비 사업*의 `22년 상반기중 본격화, 중국통신장비 배제**등으로 수출규모는 확대될 전망

    *삼성전자가 계약 및 협상 중인 글로벌 통신사: (미국) 버라이즌, AT&T, 스프린트, US셀룰러; (유럽) 보다폰; (일본) KDDI; (베트남) 비엣텔 등

    **중국 통신장비 배제로 기지국 부품 또한 국내산으로 교체 중, 국내 중소 통신장비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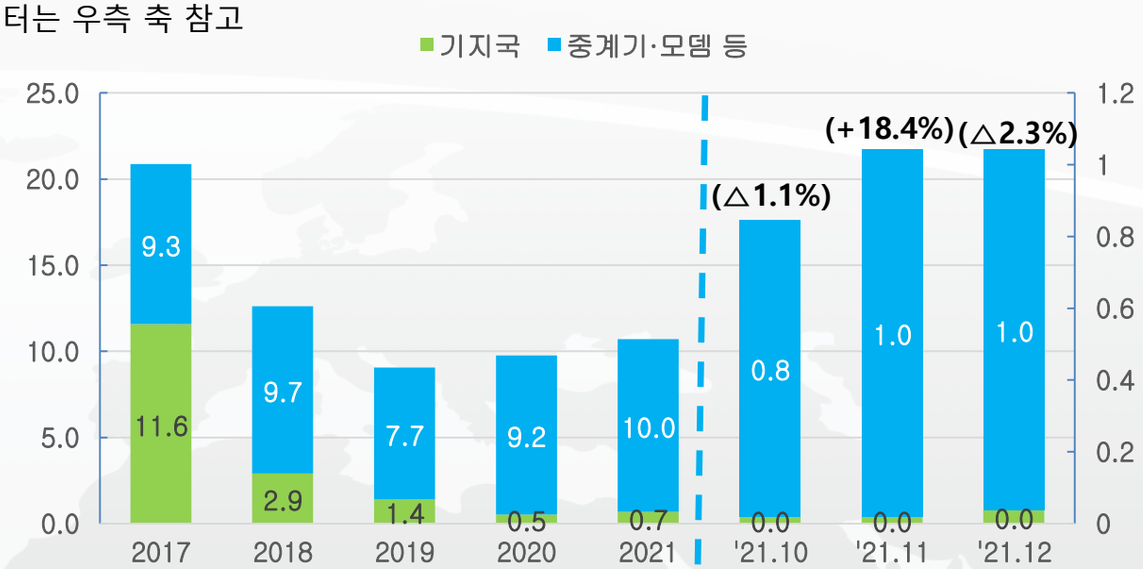
휴대폰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통신장비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